

## I. 서론

- ① 인구 고령화란 사회 전체나 국가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중위연령)이 높아지거나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 ②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사회(aged society, 14~21%),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1% 이상)로 구분
  -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라 하면 고령자 인구가 7%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사회를 의미
- ③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망률의 감소와 장수 추세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구분포상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④ 인구 고령화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문제였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
  -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교육·환경·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양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경제·사회적 변동
- 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0년 약 70억 명에서 2100년 약 10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지구 인구가 70억 명에 도달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는 8%인 5억6천2백만명
  -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16억 명에 이르러 고령 인구는 세계 인구의 16.7%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②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의 인구 규모는 2010년 현재 1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총 1억4000만 명으로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음
  - 2035년에는 세계 노인 인구 10명 중 3명이 동북아 3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동북아 3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②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 되어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국민의 노후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준비는 미흡
- ②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관련 대책과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II.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대책

### 1. 일본의 고령화 상황

-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상태로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로 현역 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가파른 기대 수명 증가는 고령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 고령화 현상과 미래상

- (저출산) 산업화의 진행 과정이 앞섰던 일본은 1970년에 이미 낮은 출산율(2.02명)을 기록

- 1994년 ‘엔젤 플랜’, 1999년 ‘신 엔젤 플랜’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하여, 결국 2003년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 합계출산율은 1.43명(2013년)으로 2006년(1.32명)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 (인구구조)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11만명(2015년 10월 1일 현재) 수준으로 2010년을 정점(1억 2,806만명)으로 감소 추세

-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92만명으로 남성 1,466만명, 여성 1,926만명으로 성비(여성 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는 76.1.

- 전기 고령자(65~74세) 1,752만명(총인구 중 13.8%),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1,641만명(총인구 중 12.9%)

일본의 인구 현황

단위(만명, %)

		합계	남	여
인구	총인구	12,711	6,183 (성비) 94.7	6,528
	고령자 인구 (65세 이상)	3,392	1,466 (성비) 76.1	1,926
	65~74세 인구	1,752	832 (성비) 90.4	920
	75세 이상 인구	1,641	635 (성비) 63.1	1,006
	생산연령 인구 (15~64세)	7,708	3,891 (성비) 101.9	3,817
	소년 인구 (0~14세)	1,611	825 (성비) 105.5	786
구성비	총인구	100.0	100.0	100.0
	고령자인구 (고령화율)	26.7	23.7	29.5
	65~74세 인구	13.8	13.5	14.1
	75세 이상 인구	12.9	10.3	15.4
	생산연령 인구	60.6	62.9	58.5
	소년인구	12.7	13.3	12.0

☞ (고령화 현황) 총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상승

- 1970년 고령화율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4년 만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주요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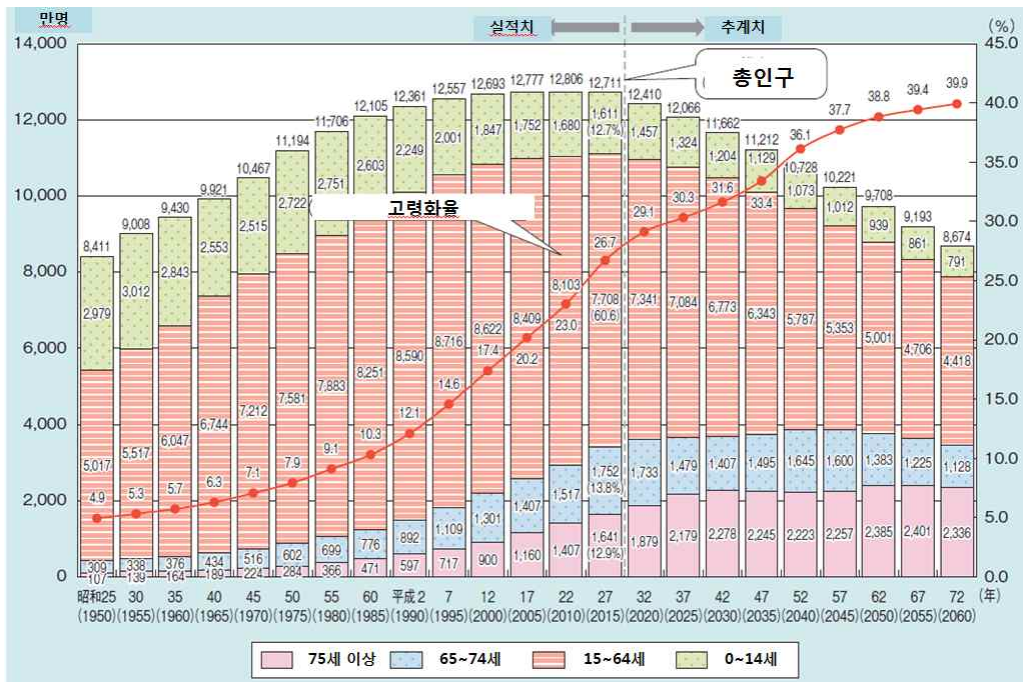
국 가	도달 연도			증가소요 연수	
	7%	14%	21%	7% → 14%	14% → 21%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2	115	43
독 일	1932	1972	2014	40	42
영 국	1929	1976	2027	47	51
이탈리아	1927	1988	2012	61	24
미 국	1942	2013	2040	71	27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출처 : UN(2010), The world population prospect : the 2010 revision

- 고령자 인구는 이른바 단카이 세대<sup>1)</sup>가 65세 이상이 되는 2015년에는 3,392만명이 되며 그 후에도 증가하여+ 2042년에 3,878만명을 정점으로 그 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고령화율은 상승할 것으로 추산
- 2060년에는 고령화율이 39.9%에 이르러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7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6.9%로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1) 단카이 세대(団塊世代)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당시 출생인구 약 806만명)를 지칭하며, 현재 이 세대에 해당하는 63세~65세 사이의 총인구는 약 664만명으로 추정

고령화의 추이와 장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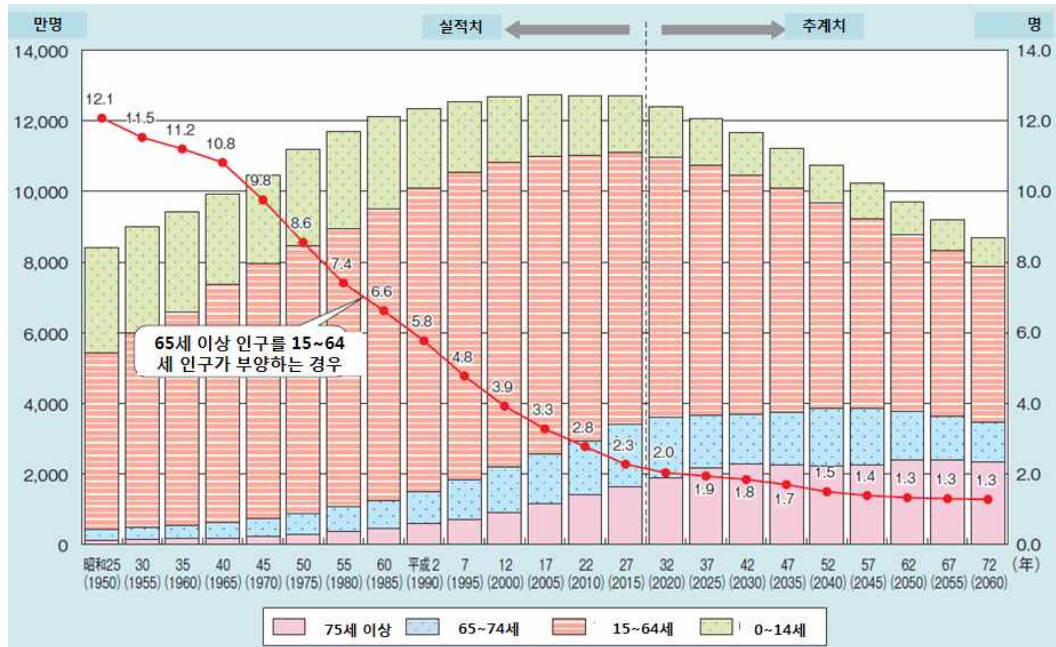


자료 : 高齢社会白書, 日本 内閣府, 2016

● (고령자 부양 부담 증대) 현역 세대(15~64세) 1.3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하는 사회의 도래

- 2015년에는 고령자 1명 당 현역 세대 2.3명의 부양이 필요하며, 2060년에는 고령자 1명 당 현역 세대 1.3명의 부양 필요하여 현역세대의 고령자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고령자 부양 비율 : 10.8명('65) → 2.3명('15)→1.3명('50)
  - 한국의 고령자 부양 비율 : 6.6명('10) → 2.6명('30) → 1.4명('50)

### 고령자 인구의 부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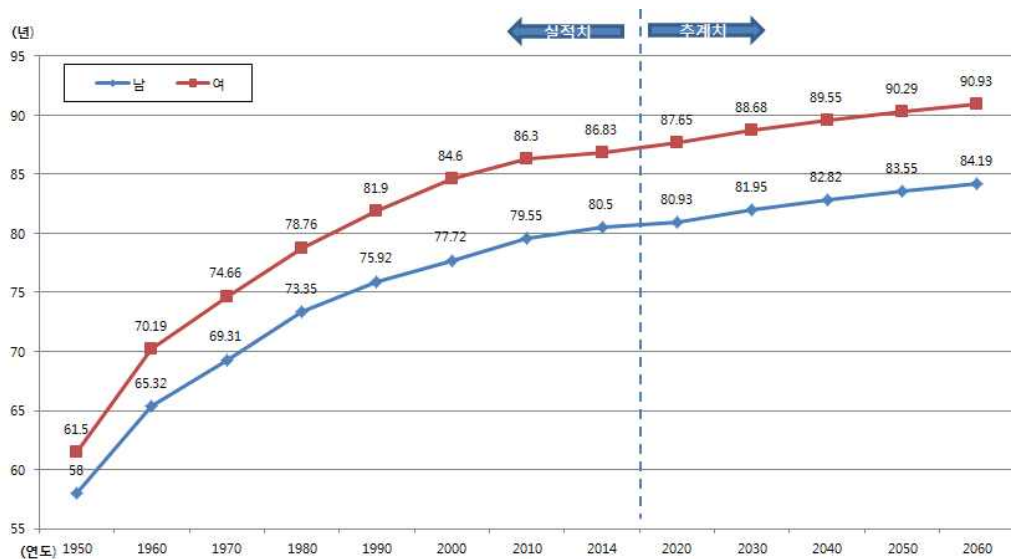


자료 : 高齢社会白書, 日本 内閣府, 2016

☞ (평균수명 증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여 세계 1위의 장수국가

- 2014년 현재, 평균 수명은 남성 80.50년, 여성 86.83년이나 2060년에는 남성 84.19년 여성 90.93년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90년을 초과

### 평균수명 추이와 장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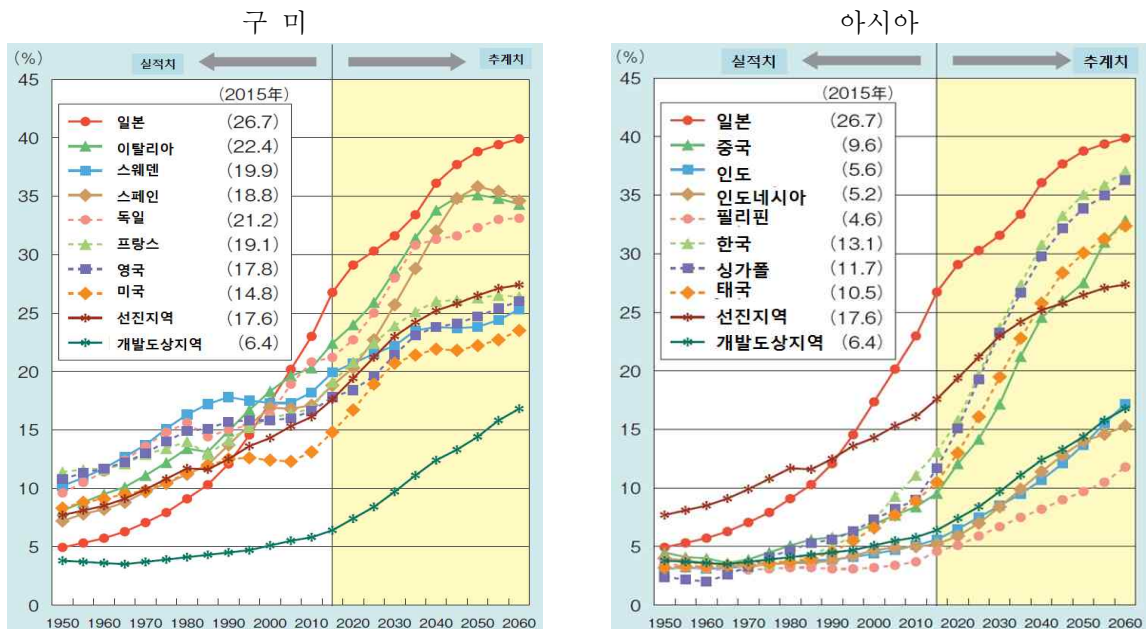


자료 : 高齢社会白書, 日本 内閣府, 2016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

- 제외국의 고령화율과 비교하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하위, 90년대에는 중간 수준이었지만, 2005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
- 아시아 각국은 향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는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5년의 9.3%에서 2060년에는 37.1%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

세계의 고령화율 추이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최고를 기록한 사회보장 급여비

- 사회보장 급여비 전체는 2013년 110조 6,566억 엔으로 과거 최고 수준
- 국민 소득에 대한 점유 비율은 30.56%(전년대비 0.41% 포인트 감소)
- 사회보장 급여비 중 고령자 관련 급여비는 2013년도는 75조 6,422억 엔, 사회보장 급여비에 점유 비중은 68.4%

지역별로 본 고령화

- 2014년 현재의 고령화율은 가장 높은 아키타(秋田県)에서 32.6%, 가장 낮은 오키나와(沖縄県)에서 19.0%

## □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의 현상과 동향

### 1) 고령자의 가족과 세대

☞ 고령자가 있는 세대는 전체 세대의 약 절반, 그 중 단독세대, 부부만의 세대가 과반수

-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는 계속 증가하여, 2014년 현재 23,572천 세대이며, 전체세대(50,431천 세대)의 46.7%를 차지함. 그 가운데 부부만의 세대가 가장 많은 약 30%이며, 단독세대와 합하면 과반을 넘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녀와 동거율을 보면, 1980년에 거의 70%였던 것이 2014년에는 40.6%가 되어 자녀와의 동거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단독세대 또는 부부만의 세대는 1980년에는 30% 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5.4%까지 증가

### 2) 고령자의 경제 상황

☞ 생활에 걱정 없다고 느끼는 고령자는 약 70%

-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에 대해서 보면 “걱정 없음<sup>2)</sup>”이라고 느끼고 있는 비율은 전체 71.0%이며, 연령 계층별로 보면 80세 이상은 80.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고령자의 살림살이



자료 : 내각부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2011년



- ㉞ 고령자 세대는 세대원 1인당 연간소득이 전체세대 평균과 차이가 없음
  - 고령자 세대의 평균 연간소득은 300.5만 엔으로 전체세대 평균(528.9만 엔)의 절반 정도
  - 세대원 1인당에서는 고령자 세대의 평균 세대원이 적어 192.8만 엔으로 전체세대 평균(205.3만엔)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공적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 세대의 약 70%에서 공적연금 등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
  
- ㉞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의 저축은 전체세대 평균의 약 1.4배이며, 저축의 주요 목적은 질병이나 개호에 대한 대비
  - 세대주가 60~69세인 세대 및 70세 이상인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서 비하여 큰 순저축을 가지고 있음
  -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의 평균저축액은 2,499만 엔으로 전체세대 평균 1,798만 엔의 약 1.4 배
  - 저축 목적은 “질병·개호 대비”가 62.3%로 가장 많고, 생활유지(20%), 풍족한 생활·취미(4.6%), 자녀에게 상속(2.7%), 여행·쇼핑(1.6%) 등임
  
- ㉞ 생활보호 수급자(피보호인원)은 증가 경향
  - 2014년 65세 이상 생활보호 수급자는 92만명으로 전년(88만명)보다 증가
  - 65세 이상 인구 중 생활보호 수급자 비율은 2.80%이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생활보호 수급자 비율(1.67%)보다 높음
  - 2) “가계에 여유가 있고 전혀 걱정 없이 살고 있다”와 “가계에 여유는 없지만 그다지 걱정 없이 살고 있다”의 합계

### 3) 고령자의 건강·복지

- ㉞ 고령자의 절반 가까이가 어떤 형태로든 자각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 사람은 약 4분의 1
  - 2013년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유소자율(有訴者率)<sup>3)</sup>은 466.1로 절반 가까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자각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 비율<sup>4)</sup>은 2013년 258.2로 유소자율과 비교하면 대략 절반 정도 있음
- 일상생활에 영향을 내용별로 보면 “일상생활 활동”(기상, 의복교체, 식사, 목욕 등)이 인구 1,000명 당 119.3, “외출”이 118.4로 높았으며 이어서 “일·가사·학업”이 94.4, “운동(스포츠 포함)”이 83.3

②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수가 약 700만명으로 증가

-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환자수와 유병률 장래 추계를 보면 2012년은 치매 환자수가 462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7명 중 1명(유병률 15.0%)이었으나 2025년에는 약 700만명, 5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전망

③ 건강수명이 늘고 있지만 평균수명에 비해서 그 정도가 적음

-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기간(건강 수명)은 2013년 시점에서 남성이 71.19년 여성이 74.21년이고, 각각 2001년과 비교하여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 수명의 증가(남성 1.79년, 여성 1.56년)은 이 기간의 평균 수명의 증가(남자 2.14년, 여성 1.68년)에 비하여 적음

④ 고령자 사망률<sup>5)</sup>은 암이 937.1로 가장 높음

- 고령자의 사인이 된 질병을 보면 사망률은, 2014년에 암이 937.1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 545.3, 폐렴 352.8순이었음
- 3) 인구 1,000명 당 지난 며칠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입원자 제외)
- 4) 인구 1,000명 당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 활동, 외출, 일, 가사, 학업, 운동 등에 영향이 있는 사람(입원자 제외)
- 5) 고령자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⑤ 고령자 요개호자 등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에서 비중이 높음

- 65세 이상의 요개호자 등 인정자 수는 2013년도 말에 569.1만명이며 2003년도 말보다 198.7만명 증가하고 있음

- 75세 이상에서 요개호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75세 이상의 피보험자 중 23.3%를 차지함
- 개호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부담에 관한 의식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42.3%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그 경우에 필요한 만큼의 저축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20.3%, “잘 모르겠다”가 10.5%,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음” 9.9%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음” 7.7% 순이었음

④ 주로 가족(특히 여성)이 개호자가 되며, “노노 개호”도 상당수 존재

- 요개호자 등에서 본 주된 개호자의 관계를 보면 개호인의 6할 이상이 동거하는 사람
- 그 주요 내역은 배우자 26.2%, 자녀 21.8%, 개호 사업자 14.8%, 자녀의 배우자 11.2%, 성별로는 남성이 31.3%, 여성이 68.7%로 여성이 많음
- 동거하는 주된 개호자의 나이에 대해서 남성은 69.0%, 여성은 68.5%가 60세 이상인 이른바 “노노 개호”의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④ 간호를 받고 싶은 곳은 자택이 남성은 약 4할, 여성은 3할, 최후를 맞고 싶은 곳은 자택이 절반을 넘음

- 일상생활을 보내고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어디서 개호를 받고 싶은가에 대하여 남녀 모두 자택에서 개호 받고 싶다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남성은 42.2%, 여성은 30.2%로 남성이 자택에서 개호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완치될 가망이 없는 병이 걸릴 경우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자택이 54.6%로 가장 많았고, 병원 등 의료시설이 27.7%

#### 4) 고령자 취업

④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약 7할

-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언제까지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5세 정도까지”와 “70세 정도까지”가 모두 16.6%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비율은 71.9%

## 고령자 고용 형태

- 전체 산업의 고용자수 추이를 보면 2015년 시점에서 60~64세 고용자는 438만명, 65세 이상의 고용자는 458만명으로, 65세 이상이 60~64세를 처음으로 앞질렀음. 또한, 65세 이상 인구 중 고용자 비율은 상승 경향에 있으며, 2015년은 13.5%
  - 60세 정년 기업의 정년 도달자 상황을 보면 2015년 6월 1일 시점에서 과거 1년간의 정년 도달자 중 계속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82.1%
  - 종업원 31명 이상의 기업 15만개 중,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sup>6)</sup>의 실시가 완료된 기업의 비율은 99.2%(147,740개사). 또한, 희망자 전원이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72.5%(108,086개사)
  - 최근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특히, 60~64세의 완전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2011년 이후로 저하하고 2015년은 15세 이상 전 연령대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6)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까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에 “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제도도입”의 몇 가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했음

## 노동력 인구 총수에 차지하는 65세 이상 비율은 1980년부터 크게 상승

- 2015년의 노동력 인구는 총 6,598만명이며, 노동력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비율은 11.3%로 1980년의 4.9%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음

## 5)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활동

### 그룹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고령자는 약 6할

- 60세 이상 고령자의 61.0%는 어떤 그룹 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20년 전과 비교하여 18.7%포인트 증가하고 있음
- 자주적으로 그룹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고령자의 활동 전체를 통해서 참가해서 좋았던 점은 “새로운 친구를 얻을 수 있음”(48.8%)이 가장 많았고 “생활에 충실감이 생겼다”(46.0%), “건강과 체력에 자신감이 생겼다”(44.4%) 순이었음
- 고령자가 참가하고 싶은 단체를 보면 “취미 동아리단체”(31.5%)가 가장 많았고 “건강·스포츠 동아리·단체”(29.7%)이다. 또 참가하고 있는 단체를 보면 “반사회·자치회”(26.7%)가 가장 많고, 약 4명중 사람에게 1명이 참석하고 있음

② 평생 학습을 하고 있는 고령자는 4할 이상

- 고령자 평생학습<sup>7)</sup> 참가 상황에 대하여 보면 이 1년 사이에 평생학습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60대에서도 70세 이상에서도 4할 이상
- 내용은 “취미적인 것”이 60대에서 24.6%, 70세 이상에서 2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스포츠”(60대 23.7%, 70세 이상 20.3%)

7) 사람들이 생애동안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는 학습활동으로 학교 교육이나 마을회관에서의 강좌 등 사회교육 등의 학습 기회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학습과 스포츠, 문화활동, 취미,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

③ 약 6할의 고령자가 젊은 세대와의 교류에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 고령자의 젊은 세대와의 교류 기회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서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최대한 참여하고 싶다”라고 회답한 사람의 합계는 2013년 59.9%이며, 10년 전에 비하면 7.2%포인트 증가하고 있음

6) 고령자의 생활환경

④ 노인의 약 8할은 현재의 주거에 만족하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현재의 주택의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만족” 또는 “어느 정도 만족” 하고 있는 사람은 총 76.3%로 자가 79.1%, 임대주택 56.6%

⑤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은 5할을 넘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2,247명으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체에 대한 비중은 54.6%

⑥ 일상정보의 원천은 TV가 가장 많고 ICT를 이용하는 사람은 3할 미만

-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는지에 대해 TV가 7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문이 63.8%
-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의 정보단말기(ICT)을 평소 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용하고 있다”<sup>8)</sup>는 사람은 26.0%
- “활용하지 않고 있다”<sup>9)</sup>는 사람의 ICT 이용 의향에 대해서 보면 약 2할(18.2%)이

“이용하고 싶다”<sup>10)</sup>라고 함

8)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와 “가끔 이용하고 있다”의 합계

9)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와 “잘 이용하지 않는다”의 합계

10)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다”과 “가끔 이용하고 싶다”의 합계

## ㉞ 기댈 곳이 없는 독신 남성이 많음

- 65세 이상 독신 고령자들이 질병 등으로 간호와 돌봄을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은 무자녀 남성이 35%로 가장 많음

## ㉞ 독신 세대 고령자의 4할 이상이 고독사를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느끼고 있음

- 누구에게도 띄지 않고 숨진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를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느끼는<sup>11)</sup> 사람의 비율은 60세 이상 고령자 전체에서는 2할 미만이지만 독신 세대는 4할을 넘고 있음
- 사인 불명의 급사나 사고로 죽은 사람의 검안부검을 실시하고 있는 도쿄도 검찰의무원이 공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도쿄 23구내의 혼자 사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자택에서 사망자 수는 2014년에 2,891명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 기구가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 약 75만 채에서 독신 거주자로 사망에서 상당기간 경과 후(1주일 이상) 발견된 건수(자살과 타살 등 제외)는 2014년도에 186건,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140건

11) 아주 느낀다와 어느 정도 느낀다의 합계

## 2. 고령사회 대책의 실시 상황

### ㉞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 골격은 “고령사회대책 기본법”(1995년 법률 제129호)에 기초

- 고령사회 대책회의는 내각 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을 위원으로 하여 고령사회 대책 방안 작성,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조정 및 중요 사항의 심의 및 대책 실시를 추진

-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하는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6개의 기본 방향으로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
  - 고령자의 인식에 대한 의식개혁
  - 노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
  -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 활용
  - 지역력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실현
  - 안전·안심인 생활환경의 실현
  - 청년기의 “인생 90년 시대”에 대한 대비와 세대 순환의 실현 등

## □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 틀

### 1) 취업·연금

#### ㉠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응

- 정년 후 계속 고용되는 유기고용 노동자가 그 계속 고용되는 기간은 노동계약법에 근거한 무기전환 신청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
- 다양한 형태로 고용, 취업기회 확보 다양화 등 고령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 40시간까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sup>12)</sup>의 개정
 

12) 최근의 고령화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난 2013년 실시한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는 65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을 65세까지 보장하도록 ①정년폐지, ②정년 연장, ③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토록 의무화한 것. 지난 2013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기업 중 92.3%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남

#### ㉡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쉬운 직장 환경 정비

- 육아 및 개호를 하는 노동자가 계속 일하기 쉬운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양립 지원 등 지원금 지급과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
  - 여성의 활약·양립지원 종합 사이트(양립지원의 광장) 등의 운용 및 모범 사례 집 작성·홍보

- 개호를 이유로 이직·전직의 방지를 위하여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 하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하여 고용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2016년 3월 29일 공포)
  - 개호휴직의 분할 취득(3회까지 총 93일)
  - 소정 외 노동 면제제도의 창설
  - 개호휴가의 반차제도 도입
  - 개호휴업 급여의 급여율 인상(임금의 40% → 67%)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범위확대(특별입양의 감호기간에 있는 자녀 등)

### ㉞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의 확립

-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급여수준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고용자 보험의 적용확대 촉진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산전·산후 기간 보험료 면제
  - 연금액 개정 규칙의 재검토 등

## 2) 건강·개호·의료

### ㉞ 개호보험 제도의 착실한 실시

-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을 확충하고, 개호직원에 대한 1인당 월 1.2만 엔 상당의 처우개선을 실시

### ㉞ 필요한 개호 서비스의 확보

- 개호인재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활용하여 참가 촉진, 노동환경 개선, 자질 향상 등을 지원
  - 이직한 개호인력의 재취업 지원, 개호직에 2년간 근무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하는 재취업 준비금 대출 제도의 신설
  - 개호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개호직에 5년간 근무로 상환을 면제하는 장학금 제도의 확충
  - 자원봉사를 하는 중고 연령자에게 입문적 연수·직장 체험의 실시 등



② 치매노인 지원 시책의 추진

- 2015년 1월에 “치매시책 추진종합전략 ~치매 노인 등에 좋은 지역 만들기를 향해서~(New Orange Plan)”을 책정.
  -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치매환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가능한 한 정든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사람답게 계속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7개 전략에 따라 치매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②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개호의 제공

-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창설하여 재택의료 내실화 등의 사업 지원

3) 사회 참여·학습

②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보람 만들기

- 고령자의 삶과 건강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령자의 자주적인 활동조직인 노인 클럽 등 고령자의 사회 활동을 지원

② 평생 학습 기반의 정비

- “전국 평생학습 네트워크 포럼”을 2015년 11월에 개최하고 행정, 교육 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협동한 지역 만들기·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자 등의 네트워킹 구축

4) 생활환경

② Barrier Free를 위한 소프트면의 대응

- 고령자나 장애인 등도 포함하여 누구나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유니버설 사회 구축을 향한 ICT를 활용한 보행자 이동지원 시책을 추진

## ㉞ 악질 상법으로부터의 보호

- 고령자를 겨냥한 특수사기(보이스 피싱 등)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홍보<sup>13)</sup>를 실시

13) 2015년도는 12월부터 “매일 말하면 사기는 막을 수 있다.”를 표어로, 고령자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평소 연락의 중요함 등을 계몽

## 5) 고령 사회에 대응한 시장의 활성화와 조사 연구 추진

### ㉞ 불안 해소, 인생을 즐기기 위한 의료·개호 서비스 기반 강화

- 의료·개호 종사자 부족과 의사의 진료과 편재, 지역 편중의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료 지원센터 확충(2015년도까지 46도도부현에 설치), 팀 의료 추진 등을 실시

### ㉞ 지역에 있어 고령자가 안심하는 일상생활의 실현

- 지역 주도에 의한 지역의료 재생과 재택개호의 충실을 위하여 여러 직종에서 지역의 문제점 파악 등을 실시하는 지역 케어 회의 추진 및 정보 통신기술 활용에 의한 재택에서의 생활지원 툴 정비 등을 추진하여, 지역에 사는 고령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구축

### ㉞ 건강·의료 관련 분야에서 이노베이션 추진

-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집약하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및 그 환경의 정비 실시·조성 등의 업무를 위해, 2015년 4월 1일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설립

### ㉞ 고령사회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 고령화 문제에 관한 기초 조사로서 5년마다 일본 고령자와 외국 고령자의 생활의식과 그 변화를 파악
  - 2015년도는 일본과 외국(미국·독일·스웨덴)의 고령자 역할과 여러 활동 및 의식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 실시

6) 전 세대가 참여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기반 구축

● 고용·취업에 있어서 여성의 능력 발휘

- 임신, 출산, 육아휴직·개호휴직의 취득 등을 한 노동자의 취업환경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에 고용 관리상의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등의 개정
- 기업에서의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활약에 적극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성금 제도를 창설

● 육아지원 시책의 종합적 추진

- 자녀·육아지원의 새 제도가 2015년 4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녀·육아 본부”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탁아소에 대한 공통 급여나 소규모 보육 급여 등의 재정지원을 내각부에 단일화
- 자녀·육아지원 제공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보육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한 지원 및 원조실시 사업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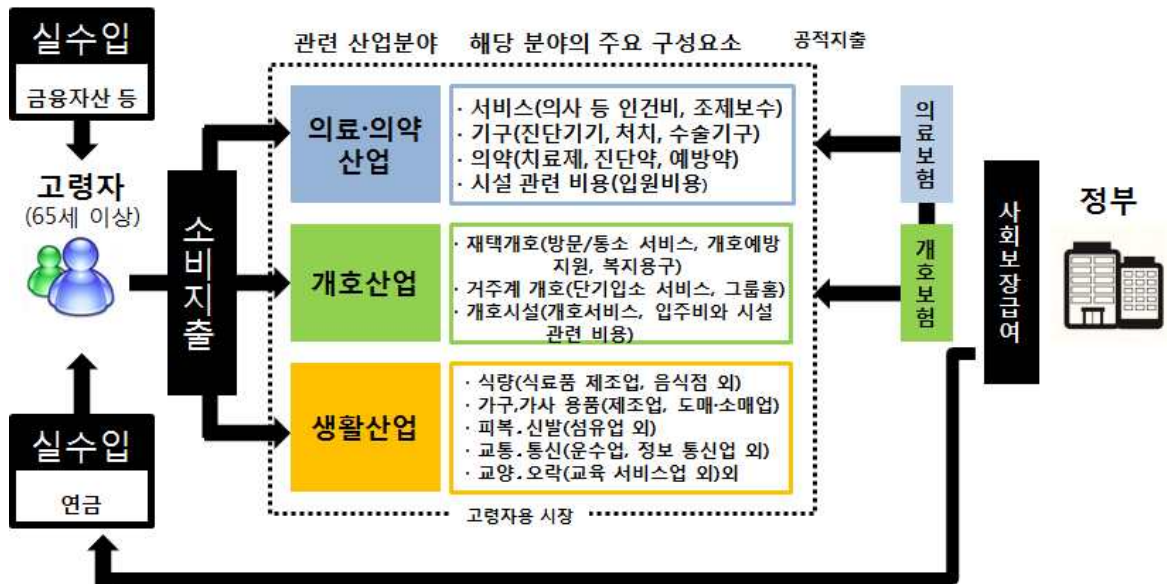
### Ⅲ.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 1. 고령친화산업 시장의 정의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층 가계 지출의 소비 지출과 사회 보장 급부, 즉 공적 지출로 구성되는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총체를 말함

- 고령친화산업 시장을 구성하는 산업 분야를 크게 “의료·의약”, “개호”, “생활 산업”의 3분야로 정의

고령친화산업 시장의 대상 범위



자료 : みずほコーポレート은행 산업조사부

일본의 고령친화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품질중시의 질적 성숙 단계로 진입

- ▶ 저출산 등으로 젊은 계층의 인구 및 구매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년의 연장 등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 증대

- 2014년도 말의 가계금융자산 잔액은 1,708조엔, 그 약 6할(1,025조엔)이 고령자에게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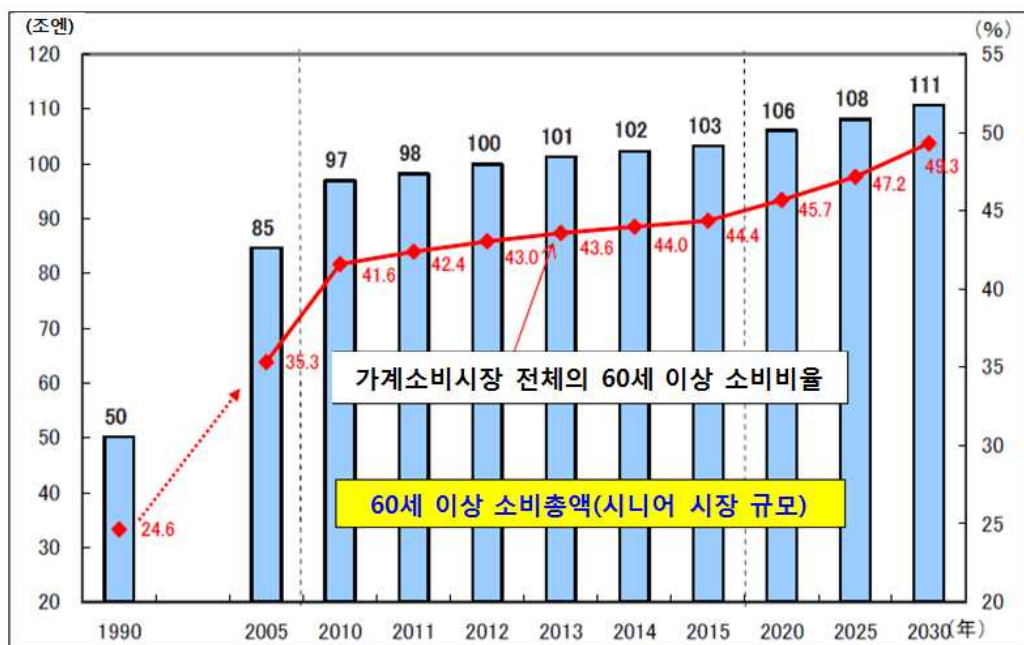
- ▶ 주요 분야로는 의류 및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배리어 프리 상품, 건강 관리·의료, 안전·안심, 여가·레저, IT 관련 서비스 및 제품이 있으며, 향후 관광, 건강식품, 로봇, 화장품, 주택, 여행 등 관련 분야의 성장이 예상

## 2. 고령친화산업 시장의 규모

- ▶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총액으로 본 일본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100조 엔이 넘는 초거대 시장으로 2030년에는 111조 엔으로 확대될 전망

-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가 전체 소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3%에서 2030년에는 49.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가계소비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소비 비율과 소비액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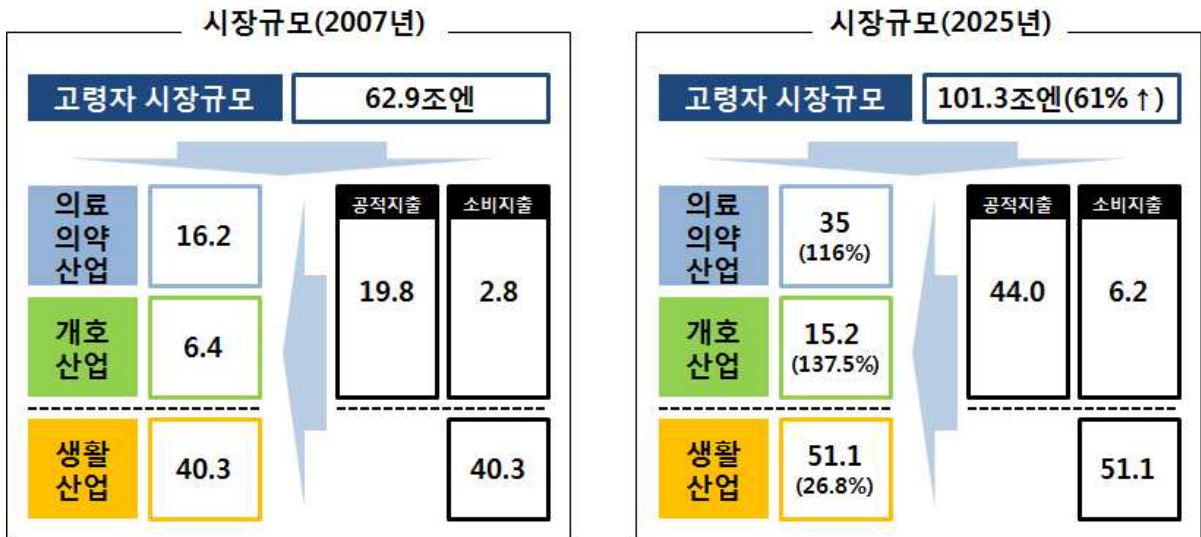


자료 : 닛세이 기초연구소

② 인구 동태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지출 및 사회보장 급여의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하에서, 고령친화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급속한 수요 확대가 전망

- 2025년에는 101.3조원 규모(2007년 대비 161%)로 성장하고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
  - 고령자 건강, 생활을 지지하는 의료·의약, 개호 산업은 약 50.2조엔 규모로 2007년(22.6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 생활 산업도 51.1조엔으로 2007년(40.3조원) 대비 약 27% 증가

고령자용 시장의 장래 추계



자료 : みずほコーポレート은행 산업조사부, 단위: 조엔, ( )은 2007년 대비 성장률

### 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시장 현황

#### □ 불편해소 요구 시장

② 노화에 따른 신체적, 생활상에 일어나는 갖가지 불편과 불만, 고충을 대체, 보완하는 형태로 해소

- 보청기, 지팡이, 전동 자전거, 배식 서비스 등이며 이 요구에 대응은 고령친화산

업 시장에서 중심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

### 1) 생활용품

- 성인용 기저귀
  -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요실금 관련 상품이 증가 추세
    - 이미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유아용 기저귀 시장을 추월했으며, 시장규모는 현재 약 1조 5000억원에 달함
- 고령자용 전동 자전거
  - 무겁고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령자층의 관념을 깨고 고령자층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5kg 미만으로 가볍게 제작
  - 또한, 키 작은 사람이 많은 고령층의 특징을 고려해 작은 사람도 쉽게 탈 수 있고 급정거 시 안전성도 높임
- 고령자 전용 스마트폰
  - 불필요한 기능은 없애고 천천히 크게 듣는 기능은 물론 버튼과 글자를 크게 배치
- 보청기
  - 언제나 청춘이고 싶은 고령자의 욕구에 착안하여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형 보청기
- 고령자 생활지원 로봇
  - 헤어 케어 로봇 : 24개의 실리콘 손가락으로 샴푸 및 드라이 기능 구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배설물 자동처리 로봇 개발
- 고령자용 의류
  - 자세와 체형 변화로 고민하는 6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보정용 속옷 및 허리가 굽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고령자용 여성복 출시

## 2) 화장품

- 고령자 층의 관심이 건강뿐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일에도 높아지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을 겨냥한 안티 에이징 제품 출시
  - 시세이도는 자사 제품 라인 중 안티에이징 제품 수를 늘리고 고령자 특유의 체취를 상쾌한 향기로 바꿔주는 비누와 화장품을 각각 출시함
  - 가네보는 60대 이상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 시리즈 ‘글로우’를 발매
  -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가오(Kao)에서는 돈보기 달린 파운데이션 출시

## 3) 유통업체의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

- 케이오 백화점은 50세 이상 고령자의 구매액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자 주 타깃 고객을 50세 이상으로 재설정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매장 개조 등을 단행
  - 보다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50~60대 고령자를 위해 화려한 색깔과 타이트한 스타일의 의류제품 전시
- 대형할인 매장인 이온은 고령층을 황금세대(Grand Generation : GG)로 칭하며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제안, 고령층에 적극 구매 중
  - 그랜드 제너레이션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맞은 세대라는 뜻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고령자를 의미
  - 특히 퇴직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고급제품 위주 소비경향도 강한 전후 베이비붐 세대 겨냥
    - GG 감사 데이 같은 할인행사를 통해 고령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해 가격 글씨나 상품 설명 크기도 확대
- 고령자를 위하여 쇼핑카트를 종전보다 25%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교체하고 돈보기 부착,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30% 이상 늦추는 등 고령층에 대한 배려 강화
- 독거 고객을 위해 용량과 가격을 줄인 소량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 편의점도 개설



#### 4) 음식물 배달 서비스

- 세븐 일레븐은 세븐 밀(seven meal)이라는 자택까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며 식품·일상품의 이동 판매 차량도 도입
- 패밀리 마트는 신문 판매점과 제휴해 도시락 등의 택배 서비스 실시
- 99플러스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기·채소·잡화 등 일상 품목 1만2000개 이상을 소량 포장하여 99엔의 동일 가격으로 판매
- 이와키노카상은 반찬을 배달한 후 1~2주일에 1회씩 찾아가 먹은 양만큼 돈을 받고 또 채워 주는 방식으로 운영

#### 5) 고령자 생활지원 서비스

- 슈퍼마켓 체인 ‘헤이와도’(平和堂)는 상품 배달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잔디 정리, 전구 교체, 지붕 수리 등 찾아가는 ‘용무 청취’(御用聞き) 서비스를 실시

#### 6) 실버 택시

- 고령자는 신체 불편을 동반하여 움직이거나 다니기 힘들므로 운전을 포함해 교통권 확보 바람은 고령자 그룹의 공통적인 요구
- 안젠(Anzen) 택시는 이러한 고령자의 수요를 택시 공급과 연결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실시
  - 일반 택시를 비롯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용차, 통원용인 침대차,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점보차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을 보유하고 서비스 콜센터인 ‘도와주는 서비스’를 통하여 쇼핑 대행, 묘소 참배 동행, 자녀 등하교, 약품 수령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

## □ 건강 요구 시장

- ②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서 자신(건강)을 위한 투자의욕이 높아지는 일도 현저한 경향을 보임

### 1) 커뮤니케이션 로봇

- 우울증·치매 환자 등의 심리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바다표범 모양의 치유 로봇 개발
- 치매에 걸린 주인이 한 일을 알려주고 못 찾는 물건을 찾아 주며 복약 시간까지 알려주는 로봇도 개발
-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악기 메이커,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즐기면서 운동하고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게임기 출시

### 2) 실버푸드 산업

- 일본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이나 서비스에 개호라는 말을 붙여 별도의 산업군으로 표현
  - 최근에는 개호를 위해 노인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이 속속 등장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
- 편의점 업체 로손은 노인돌봄 편의점인 ‘개호 콘비니’(介護コンビニ) 오픈
  - 고령자를 위하여 개호식품 및 성인용 기저귀 등 개호상품 가판대를 마련하여 판매부터 건강 상담창구와 조제약국이 함께 있어 간단한 의료서비스까지 제공
  - 식품의 경우 저칼로리, 저염식 위주로 구성하며 치아가 좋지 않는 고령자들을 위해 딱딱한 음식은 배제
  -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당도를 조절한 상품 코너도 마련

- 패밀리마트는 염분과 단백질 등 식사제한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적합한 90개의 의약품  
을 갖춘 전용 코너를 마련
  - 이용고객 가운데 50대 이상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소프트 타입 카라멜
  - 고령층을 배려해 씹기 편하도록 만들고, 치아에 달라붙지 않도록 제조
- 야쿠르트 골드
  -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활동적인 고령층을 위해 글루코사민, 로얄제리, 칼슘, 비타민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업그레이드된 제품 출시
- 퇴원자들에게 병원 식단 그대로 제공하는 실버푸드 서비스
  - 요양식처럼 건강한 식단을 희망하는 노령자들과 병원 퇴원자들을 대상으로 저염식,  
당뇨식, 심장(心臟)식, 신장(腎臟)식 등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병원에서 먹던 식단을 그  
대로 제공

### 3) 건강관리

- 의료업체인 케어프로는 혈당치·콜레스테롤 등을 항목 당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손쉽게  
진단받을 수 있는 원 코인 건강진단숍을 개설
- 고령자들이 마작과 바카라 등 게임을 즐기며 뇌를 활성화 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카지노  
요양시설
- 값비싼 헬스장의 반복 운동에 질린 중년 이상 은퇴 여성을 타깃으로 저가 비용의 주택  
가 입지로 비용 부담을 줄인 여성 전용 피트니스클럽 ‘커브스(Curves)’

## □ 여가산업 시장(여행, 레저·취미생활 등)

- ② 많은 고령자들이 기본적으로 물질에는 곤란함이 없어 날마다의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느낄 수 있거나 활동이나 취미를 확충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뿌리 깊음

### 1) 테마파크

- 디즈니랜드 TV 광고는 반백 노인이 등장해 인생 전체의 행복한 추억 공유를 호소해 특히 은퇴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음
  - ‘부모님께 연간 입장권을 선물하자’는 캠페인과 시니어 할인 제도 등 혜택 제공은 상시적

### 2) 여행 서비스

- 은퇴 세대의 1인 여행객을 위한 ‘라라여행’ 기획
- 사진 동호회, 철도구락부 등 은퇴 세대가 관심을 갖는 특정 취미·테마와 연계한 상품도 증가세
  - 본인 인생에 큰 족적을 남긴 기억 속의 방문 현장과 추억 공간을 찾아내 여행 상품으로 묶은 추억 여행
- 다이내믹 패키지(DP: Dynamic Package)로 불리는 주문자형 맞춤 여행도 인기
  - 교통·숙박·렌터카·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여행 부품을 일괄 제공 후 고객이 이를 조합하는 것으로 은퇴 세대가 주력 고객

## □ 연결 관계 요구 시장

### » 자녀, 손자, 친구와의 관계를 지원하는 시장

- 노부모 확인 서비스 등의 효도 시장, 자녀·손자용 시장, 동창회 지원 등

#### 1) 고령자 확인 서비스

- 아이포트
  - 항상 사용하는 친밀한 제품인 전기 주전자를 활용한 노인 주시 서비스
  - 온수 스위치를 누르면 '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이 자동으로 보내짐
- 건강 발신 프로그램
  - 건강 상태별 번호 부여로 매일 아침 해당 고령자가 발신하면 이를 체크하며 상태가 나쁘거나 발신이 없으면 연락·방문
- 안심전화 서비스
  - 독거 고령자의 갑작스런 건강악화에 대비하여 단순히 해당 서비스 번호를 누르고 1번(건강함), 2번(보통임), 3번(어딘가 불편함) 중 하나를 누르면 사전에 등록된 자녀, 지인에게 독거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손쉽게 전달
- 게이오 전철의 시니어 시큐리티 서비스
  - 철도 주변 거주 고령자에게 긴급 통보, 안부 확인, 무제한 대화 통화(정액)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
    - 경비 업체와 협력하여 긴급 출동 서비스도 제공
- NTT 니시니혼은 전화로 대화·상담, 보호,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 대상 지원 서비스 시작

##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취미인 구락부는 고령자 정보는 물론 2030세대와의 공감 이슈를 찾아줌
  - 여행·노래·블로그·인터넷 등이 주목

## 3) 주택

- 2.5세대 주택은 10~20분의 거리에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단지를 형성
  - 만혼(晩婚)·비혼(非婚)을 감안한 미혼 혈육의 공간 마련이 최대 매력

## □ 사후 준비 서비스

### 1) 유언 대응 신탁

-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의 ‘아주 안심신탁’
  - 수탁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생활 자금을 계획적으로 받고 사망 이후엔 손쉽게 유족에게 넘어가도록 설계

### 2) 송골(送骨) 서비스

- 유골을 우편 상자에 넣어 납골 시설을 갖춘 사찰 등에 보내면 처리해 주는 서비스

### 3) 사후정리 서비스

- 고독사 후 유품 정리, 청소 대행, 화장 등을 대행하며 무연고의 독거 고령자에겐 묘지 알선 등도 실시

## IV. 결 론

- ①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고령화율)은 2015년 26.7%에서 2060년 39.9%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의 고령화율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37.1%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과 같이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 ② 일본의 고령자 부양 비율은 2015년 2.3명에서 2050년 1.3명으로, 한국의 고령자 부양 비율은 2010년 6.6명에서 2050년 1.4명으로 예측되어 현역 세대의 노년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③ 일본 가계 소비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비비율은 2030년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소비총액은 111조 엔으로 추정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53%에 불과해 독일, 일본의 86.4%보다 30%p 이상 낮았음
- ④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62.9조 엔에서 2025년 101.3조 엔으로 61% 증가가 예상되며 생활산업 부분이 51.1조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한국의 GDP 대비 고령친화산업의 비중은 5.4%(2012년 기준)로 일본의 19.6%에 비해 매우 낮았음
- ⑤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고령친화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음
- ⑥ 이를 극복하고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여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

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소득 보전이 필요하며 다양한 소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교육·레저·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개발도 지원해야 함

-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 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들도 고령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으로 고령자의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참고 문헌

- 100세 시대 도래와 실버산업의 트렌드 변화 - 미·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금융연구 2013-0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World Population Ageing: 1950-2050,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 실버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15
- 선진국의 고령화 대책과 시사점, 최성재, 계간 감사, 2012
- 인구와 경제, 김은경, CHINDIA Plus, 2016
-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 高齢社会白書, 日本 内閣府, 2016
- 「少子化対策・高齢社会対策」, 日本 内閣府, 2016
- ‘실버 경제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4-27호, 2014
- 高齢者の消費力のポテンシャル,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5
- 高齢者市場開拓の視点,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2
- 高齢者向け市場,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2012
- An Aging World ; 2015,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6
- 「シルバー産業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の整理・分析」に関する業務報告書, 早稲田大学 電子政府・自治体研究所, 2016
-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Global Business Report, 2010
- 시니어 시프트 도래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대응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2016
- 일본의 고령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생명보험협회보, 2016
- 고령인구 증가로 발전하는 일본의 실버산업, 김명중, HR Insight, 2014
- 일본 실버 시장 달구는 유망 테마 10, 전영수, 한경 Business, 2014
- 日 실버산업 보면 韓 미래 먹거리 보인다, 아시아경제, 2016
- 일본 실버시장 주목해야, KOTRA 오사카무역관, 2014
- 일본 실버시장에서 성공한 업종 10가지, FACTOLL, 2016